

다르다는 것은 특별한 것

(『아름다운 아이』를 읽고)

윤성욱

엄마의 부탁으로 마트에 가서 사과를 샀다. 어떤 사과는 너무 비싸고 어떤 사과는 비싼 사과의 반값밖에 되지 않았다. 뭐가 다를까 자세히 보니 모양이 반듯하고 크기가 큰 것은 비싸고 비뚤어진 모양이나 흠집이 있는 것은 반값이라는 것을 알았다. 맛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생김새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

‘아름답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좋아하고 조금 다르면 다른 시선으로 본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어기’라는 아이나 장애를 가진 우리 형처럼 말이다.

며칠 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나의 귀에는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긴 소파 위에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엄마와 형이 보였다. 나는 이유를 몰라서 함께 울 수도,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울던 엄마의 말을 듣고 나는 너무 화가 났다. 형

은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한쪽 다리의 성장판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짧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형의 신발 한쪽에는 두꺼운 특수 깔창이 깔려 있었고 그걸 빼면 균형이 맞지 않아 팽귄처럼 걷게 된다.

오늘도 깔창 칸 신발을 신고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친구들이 달려와 형의 신발을 빼고는 “야 팽귄!” 하며 형의 신발을 이리저리 던졌다. 형은 신발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다시 뺏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맨발로 교실로 돌아왔고 멍하니 다리를 만지며 울었다고 한다.

형의 이런 모습을 보니 얼마 전 읽었던 『아름다운 아이』라는 책이 생각났다. 학교 추천 도서에 있어서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우리 형을 생각했고 마음이 아팠었다. 왜냐하면 차별을 이겨 나가는 것이 책 속의 주인공과 형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공 ‘어기’도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얼굴이 일반인과 다르게 태어났고 27번이라는 많은 수술을 받았다. 얼굴에 남은 수술 자국들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5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시간을 보냈다.

‘어기’는 집에서 우주에 관해 관찰하고 몰두한 탓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헬멧을 쓰고 다닌다. 나는 오히려 헬멧을 쓰는 게 ‘어기’에게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다니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얼굴을

속이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슬펐다. 다른 아이들처럼 모든 것에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이유로 보통의 아이로 지낼 수도 없고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살 수도 없는 것이 형의 모습과 닮아서 눈물이 났다.

헬멧을 쓴 독특한 아이 ‘어기’는 학교를 갔어도 친구가 한 명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생기게 된다. 자신이 잘하는 과학 시험지를 친구에게 보여 주는 장면은 진짜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렇게 여러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갔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된 ‘어기’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헬멧을 벗게 되고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던 누나도 ‘어기’의 존재를 숨겼다가 사실을 말하면서 가족이 더 행복해졌고 사람들과 다르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멋있게 보였다.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쌓아 가는 ‘어기’는 졸업식 때 힘든 환경에서 용기를 냈다는 칭찬으로 상을 받게 된다. 이 부분은 정말 ‘어기’가 아닌데도 너무 가슴이 벅찼다.

우리 형도 책 속 주인공 ‘어기’처럼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러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도 모두 같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용기를 내어 보통의 사람들과 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르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솟을 것 같다. 아름다운 아이 ‘어기’처럼 우리 형도 아름다운 아이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